



현대차·기아가 최근 '2026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 등 5관왕을 달성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기아 EV4, 기아 PV5, 제네시스 GV60 마그마, 모베드(MobED), 현대 사원증 케이스.

〈현대자동차그룹 제공〉

현대차·기아 디자인 세계 평정... '레드닷 어워드' 5관왕

전용 전기차 EV4 최우수상 영예
PV5·GV60 마그마 등 4개 본상
“고유한 철학·미래 응집된 결과”

현대자동차·기아가 독창적인 디자인 철학과 미래를 내다보는 영감의 조화를 바탕으로 글로벌 디자인 어워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현대차·기아는 최근 '2026 레드닷 어워드: 제품 디자인(Red Dot Award: Product Design 2026)

6)에서 최우수상 1개와 본상 4개 등 5관왕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하는 레드닷 어워드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로, 매년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우수한 디자인을 선정한다.

이번에 발표된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기아 EV4가 최우수상(Best of Best)을 거머쥐는 영예를 안았고, 이어 ▲기아 PV5 ▲제네시스 GV60 마그마 ▲모베드(MobED) ▲현대 사원증 케이스

이 등 4개 제품이 본상(Winner)을 수상했다.

기아는 EV4가 최고 디자인으로 인정받은 제품에만 수여되는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전용 전기차 모델 가운데 역대 네 번째 수상 차종으로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2022년 EV6를 시작으로 2024년 EV9, 2025년 EV3가 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EV4는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퍼지트 유나이티드(Opposite United)'를 바탕으로 도전적이고 과감한 디자인 표현으로 눈길을 끌었다. 기아의 전동화 라인업에서 비어있던 세단의 자리를

채우고, 패스트백 실루엣과 기존 세단의 틀을 깨는 과감한 디자인, 해치백의 콤팩트하고 역동적인 비례와 유럽 라이프스타일에 부합하는 실용성을 부각시킨 디자인이 특징이다.

또, '2026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최고상 금상을 수상한 바 있는 PV5는 실용성을 극대화한 패키지, 미래지향적이면서도 강인한 디자인 등으로 본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또 다른 본상 수상작인 제네시스 ▲GV60 마그마는 공력 중심 설계와 전용 마그마 디테일이 결합된 디자인으로 세련된 우아함과 독보적인 존재감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기아 로보틱스랩이 개발한 모바일 로봇 플랫폼 ▲모베드와 맥세이프 기능과 모듈형 빌드 더 시스템 적용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 ▲현대 사원증 케이스도 나란히 본상을 수상했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각 브랜드가 가진 고유한 디자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영감이 응집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현대차그룹, 공장 자동화·로봇부품 조직 신설

'아틀라스' 생산 현장 안착 지원

자동차 생산 현장에 휴먼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을 예고한 현대차그룹이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SDF)과 로봇 부품 전담 조직을 잇달아 신설했다.

아틀라스가 초기 생산 현장에 안착하고 양산 체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할 SDF 체계와 부품 공급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SDF 추진 담당' 보직을 신설하고 알페시 파텔 상무를 선임했다. SDF란 인공지능(AI)이 생산·품질·물류 등 공장 전체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 제어하는 공장이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매켄지앤드컴퍼니 출신의 파텔 상무는 2023년 현대차그룹에 합류한 뒤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 최고혁신책임자(CIO)를 맡아왔다.

현대차가 이번에 파텔 상무를 HMGICS에서 그룹 본사로 불러들인 것은 검증 단계에 있던 SDF 전략을 글로벌 생산공장에 확대 적용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파텔 상무는 SDF 운영체제 설계, 디지털트윈 구축, 데이터 관리 등을 총괄하는 가운데 아틀라스의 현장 투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규모의 로봇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현대차·기아 생산 현장에 2015천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틀라스는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 HMGMA에서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 작업을 맡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을 담당하는 등 작업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향후에는 인도 푸네 공장, 울산 전기차(EV) 전용 공장 등 신규 생산 거점을 중심으로 SDF 기술이 확대 적용될 전망이다.

또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부품구매실'을 신설하고 실장에 소현성 전 베이징현대 발전기획본부장(상무)을 선임했다. 보스톤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양산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부품 구매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앞서 보스톤다이내믹스는 아틀라스에 탑재되는 액추에이터(구동장치)를 비롯해 그리퍼(로봇 손), 헤드 모듈 등 핵심부품 6종에 대한 양산을 현대모비스에 요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해당 부품들의 예상 생산량,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생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소 상무가 베이징현대에서 쌓은 중국 시장 경험을 고려할 때 원가 절감과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중국산 부품 활용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



기아, 월드컵 차량 660대 공식 지원

카니발·텔루라이드 등 북미 3개국 공급

기아가 FIFA 월드컵 2026TM(이하 FIFA 월드컵)의 공식 모빌리티 파트너로서 대규모 차량 공급을 통해 대회 운영 지원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아는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LA Stadium)에서 차량 전달식을 갖고, 오는 6월

11일부터 7월19일까지 열리는 FIFA 월드컵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총 660대의 차량을 공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경기 운영에 활용되는 차량은 ▲카니발 ▲텔루라이드 ▲쏘렌토 ▲스포티지 ▲K4 ▲니로 ▲쏘넷 등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 전역에서 열리는 가운데, 기아는 다

양하고 혁신적인 라인업을 대표하는 주요 차량을 필두로 미래지향적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아는 이번 공식 차량 지원뿐만 아니라 FIFA 월드컵 디스플레이 테마 출시와 기아 '오퍼셜 매치볼 캐리어(Official Match Ball Carrier, 이하 OMBC)' 등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축구팬들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MBC는 기아의 FIFA 월드컵 파트너십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월드컵 경기 시작 전 공인구를 심판에게 전달하고 선수들과 함께 입장하는 어린이를 선발하는 프로그램이다. /임채만 기자

KH MEDICHECK

건강검진

매일체크 ✓ 행복체크

예약 및 문의 062)363-4040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광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60415-중-211304호